

# 에너지전환연구회 워크숍

〈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 〉

2022. 9. 14.

## 에너지전환연구회 워크숍 개최계획

-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 -

### 1. 목적

-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는 에너지전환 및 지역에너지체계 분야 연구자간 관련 정보·지식의 공유하고 에너지전환 및 지역에너지체계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조사하여 도 및 시·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구성되었음
-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은 전통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이나 실행 과정에서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3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정의 기후위기 당사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대책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함

### 2.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22년 9월 14일(수) 10:00~12:00
- 장 소 : 온라인(zoom 이용)
- 주 관 : 충남연구원(에너지전환연구회), (사)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 3. 진행 순서

구분	시간	내용	발표·토론자
소개	16:00~16:05		사회 : 여형범(충남연구원)
발제	16:05~16:30	충남 기후위기 당사자 인터뷰 결과와 시사점	박기남 상임이사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지정 토론	16:30~17:30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경험 및 기후 적응대책 제안	좌장 : 황성렬 이사장 배형택 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박정섭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의장 김춘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상담원 최재석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 류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자유 토론	17:30~18:00		참석자 전원

### 4. 소요 비용 : 총 구십만원(₩900,000)

- 토론비: 900,000원 (좌장 1인×150,000원, 토론자 5인×150,000원)

발 제 문

# 기후위기 당사자 인터뷰 사례 보고

박기남 (사)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상임이사

# 2022 충청남도 기후위기 당사자 인터뷰 사례 보고서

2022 충청남도 기후위기 당사자

## 인터뷰 사례 보고서

2022. 2

사단법인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 기간 : 2022. 1. 5(수) ~ 2. 28(월)

○ 방법 : 대면 인터뷰

○ 참여 : 인터뷰 총 29명

총관/자문/진행 총 13명

○ 주관 : 사단법인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 후원 :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 참여

구분	이름	소속	직위
총관	박기남	(사)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상임이사
자문	여형범	(재)충남연구원	연구원
진행	권경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희정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신나영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축산문제팀장
	신아롱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교육협력국장
	신은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우삼열	아산시주노동자센터	소장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탄석탄팀장
	조하나	아산시민연대	사무차장
	조혜경	충남민예총	문화예술정책위원장

## 사업 취지 및 목적

-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의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들을 고려하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토대
- 충남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평가 기준을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인식과 실천을 반영하여 설정하는데 기여
- 기후변화 당사자 각 그룹별 사례집 제작을 통해 이후 부문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논의 및 정책 반영 근거
- 제3차 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충남연구원) 후속 과정

**01 기간** 2022. 1. ~ 2.

**02 주최** 사단법인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전화 070-8823-0422)

**03 참여단체**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위,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충남청소년  
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2022 기후위기 당사자 인터뷰 현황

그룹/분야	계	여성	남성	나이	지역
농민	4	0	4		
수도작(벼농사+밭농사)			1	60대	홍성
과수			1	50대	예산
축산1			1	40대	홍성
축산2			1	70대	홍성
어민	3	0	3		
공동어장			1	60대	서산
선주			1	50대	태안
양식장			1	50대	태안
이주민	3	2	1		
이주노동자			1	40대	아산
이주여성		2		30대	아산
장애인	3	1	2		
이동권		1		40대	천안
청각			1	30대	천안
시각			1	50대	천안
청소년	2	2	0		
학교 밖		1		10대	천안
학교 내		1		10대	천안
주거취약계층	2	1	1		
주거복지센터1			1	60대	천안
주거복지센터2		1		50대	천안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2	2	0		
복지시설		1		60대	당진
방문서비스		1		60대	당진
노인	2	1	1		
의료서비스불편 지역1		1		70대	당진
의료서비스불편 지역2			1	80대	당진
문화예술	4	1	3		
전시(시각디자인)		0	2	40대	아산
공연예술		0	1	50대	아산
전시(회화)		1	0		당진
노동자	4	0	4		
건설		0	1	30대	아산
플랜트		0	1	40대	당진
플랫폼		0	1	40대	천안
실내(제철)		0	1	40대	당진
계	29	10	19	0	0

34.5% 65.5%

농민

분류	성별	나이	지역 거주	기후변 화이해	기후변화 인식 이유	피해	향후 영향	정책 요구	
농민	수도 작	남성	60대	30년	심각하 다	녹색평론 창간호부터, 기후위 기 대응으로 귀농	최근 2~3년 사이 피해 실감, 벼 보험 가입 보상금 받음(친환 경 농산물 의무가입), 3~4년 전 부터 병충해 극심, 배추 콩 수 확 안됨, 노지 탄저병으로 하우 스 고추 폭염으로 실패, 농작물 피해 외 농민 폭염 노동 사망	기후위기 속에 농산물 생산 우려,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재작년에는 노지 고추가 망했 고 작년에는 반대로 하우스 고추 피해. 폭염 하우스 노동 힘듦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단계 이동하도 록 선택형 직불제 강화 방법 고민 필요. 농민들 손해를 감수하는 것에 동력 제 공. 소농 지원 및 육성,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도시민 농촌 이주 지원, 이주노동자 포용 지원 정책
	과수	남성	50대	17년	10여 년 전부터 인식	10여년 전부터 매년 피해가 일상, 4, 5년 전부터 기후변화 대비, 자체 미세 살수 시설, 태풍피해 저감시설 설치, <u>한국 농업 중 가장 민감하고 취약 한 곳이 사과농업.</u>	동해와 서리, 일소 피해. 꽃샘추위 2월 동해, 3월 4월 서 리, 여름 30도 이상 고온이 지 속되면 사과 화상(일소) 예상은 해발 50미터로 기후변화에 취 약한 조건. 사과 주산지가 강원 도 영월, 정선 경기도 포천, 파 주, 연천 등으로 이동	사과농사는 점점 어려워질 것. 탄저병과 당도가 떨어짐. 피해 는 더욱 심각해질 것.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나 대체작물 연구와 보급, 생산 유통 소비 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노동집약적이고 고 생산비. (선물용 보 기 좋은 색깔 모양에 집착)
	축산	남성	40대	40년	지역 농업학 교. 일찍 인식	기후변화 환경문제는 도시문 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없음. 95년 환경문제 대 두부터 지속적인 교육받음	젖소는 더위에 취약해 일상적인 대비 필요. 폭염일수 증가로 우 려. 홀스타인 젖소 품종이 한국 기후에 맞지 않음. 차광막, 축사 지붕에 물 뿌리고 선풍기 가동. 비 영향으로 지난해 초지농사가 잘 안 됨. 지난해 늦가을 비로 벼짚을 수거하기 어려워 겨울에 수거하며 품질이 떨어짐. 전국적으로 벼짚 생산량 격감해 한우 농가들 벼짚 수급이 어려웠음. 생산량 감소가 가장 큰 피해. 원 유 생산량도 감소. 기후변화로 사료 값은 계속 인상되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생산성은 감소함.	축산업 자체 근본적인 변화 필요. 전체 가축 수를 면적대비 두수를 줄이는 것 이 필요. 규제와 지원 동시 필요. 소규 모 농가 지원, 친환경 바이오가스 시설 대폭 증가 필요. 자급지향적인 시스템 구축.	
		남성	70대	25년	인식	축산 분야 탄소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 1.3%. 축산업을 탄소 배출 주범으로 호도	돼지는 땅구멍이 없어 더위가 직접적 영향. 돼지 사육 최저 온 도는 18도에서 24도. 모돈이 생존을 위해 유사산을 일으킴. 폭 염은 번식부터 비육돈까지 영향을 미침.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 기요금 부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지열 이용 또는 외 부 벽체 쿨링패드 설치로 단열 강화. 시 설비 지원, 집단 처리시설로 바이오 가 스 발전소 설치. 화학비료 대신 축산 분 뇨 퇴비화.	



분류		성별	나이	지역 거주	기후변 화이해	기후변화 인식 이유	피해	향후 영향	정책 요구
어 민	공동 어장	남성	60대	60년	심각하 다	방조제로 민물 유입 차단되어 공동양식 어장에 영향, 주변양식 장 소독제, 대산 석유화학단지 굴뚝 연기와 온배수와 분진 영향, 서서히 바다가 죽어감, 수온으로 김 생산이 안됨. 바지락 양식장 개체수 감소		과거 도성리 바다는 얼음이 10센티 정도였으나 점점 겨울 이 없어져 바지락, 감태 생산 량 감소 우려. 겨울이 추워야 바다양식 생산량이 증가	방조제로 인한 피해 해결, 민물 유입 해 수 유통 원활하게 이동하는 기수역 복 원, 갯벌 복원
	선주	남성	50대	16년	아주 심각	수온 영향에 민감한 어족 자원 감소. 우럭 광어를 낚기위해 점 점 멀리 나가야 하고 더 많은 기름 소비.		수온 상승에 따라 새로운 어 종 유입 우려.	변화하는 어종에 대한 이해, 잡는 법, 활용법 준비. 방파제 등 태풍, 해일 대 비 시설, 생분해 어구 등 친환경어업용 품 개발 보급 확대, 갯벌 및 해양보호구 역 관련 교육
	양식 장	남성	50대	59년	아주 민감하 게 느낌	수온은 어류 생존에 밀접한 영향. 더 이상 겨울 바다가 얼지 않 음. 여름 고수온으로 병이 많이 생김. 겨울이 춥지 않으면 여름 에 피해. 여름 태풍피해 심각. 수온 28도 이상 올라가면 죽는 고기 발생. 우럭보다 송어 양식		30도 이상 고수온이 한달 정 도 유지될 경우 피해 우려	석탄 줄이는 것이 필요. 고수온에 대비 한 양식 교육. 해수유통
이 주 민	이주 노동 자	남성	40대		심각	필리핀 소식 인터넷으로. 기후변화로 많은 문제. 태풍이 더욱 강 해지고수면 상승, 땅이 좁아짐. 개발에 따라 나무가 사라짐. 코 로나19 시골에서는 백신 접종받지 못함. 치료도 어려움. 잘 못 된 정보로 백신을 맞지 않음. 필리핀 감염 큰 피해		태풍이 더욱 강해질 것. 필리 핀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1만 명, 자연파괴, 해수면 상승	나무를 심고 오염을 줄이는 노력 필요
	결혼 이주 여성	여성	30대	10년		언어소통 어려움. 네팔과 비슷 한 날씨. 한국 내풍 무서움. 네팔 오토바이 등 배기가스 문제 심각, 네팔에서도 전기자 동차 구입 노력	코로나19 네팔 사망률이 한국 보다 높음, 시골은 2차 접종까 지 했다고 들음. 잘못된 정보로 피해.	여름 더 더워지는 것 느낌, 겨울에는 더 추워지게 느낌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해결 방안과 대책 마련
	결혼 이주 여성	여성	30대		인식	한국 겨울 추워서 힘들고, 캄 보디아보다 더 더운 여름도 힘들, 습도가 높음	뉴스를 통해 기후변화 인식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짐	건물, 주차장보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 이 중요. 숲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

분류		성별	나이	지역 거주	기후변 화이해	기후변화 인식 이유	피해	향후 영향	정책 요구
장애 인	이동 권	여성	40대	20년	인식	여름 에어컨 없이 생활 어려움. 공기청정기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가전제품 구매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예측되지 않은 날씨 변동에 따른 이동 어려움. 준비되지 않은 우산 사용 등. 날씨에 따른 진통제 복용 횟수 증가함. 여름 피부 노출에 따른 질병(물사마귀 등) 발생. 봄 가을이 사라지면서 외부 이동 어려움.		도움이 필요. 재난 대피 상황서는 속수 무책.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후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청각	남성	30대		인식	생존과 직결. 재난 상황에 더욱 소외. 청각장애인은 소통에 어려움. 재난 상황에 수어통역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2019년 강원도 산불, 2020년 코로나 1차 대유행 위험에서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함	장애인이 동등한 혜택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장애인인식교육 의무화, 장애인 중심 통합교육. 정부 정책 수립 시 복지 전문가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직접 참여, 재난 알리미 수어 도입, 긴급재난 상황에서 수어통역 대책 마련
	시각	남성	50대	28년	인식	경주에서 바나나 파인애플 재베 뉴스, 수온 상승으로 굴 가격 인상, 미세먼지로 마스크 착용	안마 고객 감소, 병천에서 폭우	바다 자원 고갈, 제철 생선 어획량 감소 등으로 먹을거리 가격 인상, 전기요금 인상, 기아와 가뭄	자원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조례 제정, 기후환경관련 조례 제개정 및 모니터링, 긴급재난 발생시 장애인 대처 방법 마련, 재난문자 알리미는 음성 전화기 사용.
청소년	학교 밖	여성	10대	학교 박지 원센 터 활동	심각하 다고 들은 정도	이상 기온 현상, 북극곰 이야기 등 TV를 통해	집중호우로 기숙사에 물이 참, 미세먼지 오염	바이러스 등 사람에게 위해. 생존 위협, 전기세 가스비용 증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미니 웹툰을 통한 기후변화 영상 교육, 쓰레기 줄이기
	학교 내	여성	10대	청소년 환경 경동 아리 활동	심각하 게 인식	등교거부 기후행동 캠페인 유 튜브 영상. 대부분 기후변화 인식하지 않음	여름 무더위,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체육 교실 수업.	어른들이 10년 전(기후변화 전) 누렸던 당연한 것을 당연 하지 않게 될 것, 마스크, 방 독면 착용, 홀로그램으로 동물 들을 볼 수도...	텀블러 쓰고 장바구니 든다고 나아지지 않을 것,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로 전 환

코로나 시대, 의사 소통?

분류	성별	나이	지역 거주	기후변 화이해	기후변화 인식 이유	피해	향후 영향	요구
노동자	건설	남성	30대		인식	건설현장은 날씨 영향. 집중호우, 폭우, 폭염, 폭설, 한파 등 일하기 어려움. 철근 화상 위험 등	온열질환, 땀띠, 열화상, 산재 위험 증가, 생명 위협, 폭염에 장비 입고 마스크하고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숨이 쉬어지지 않고 정신을 잃기도 함. 더 덥고 습한 환경 속에 노동 우려와 불안. 산재로 인한 사망보다 장애 또는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끔찍.	국가 산재예방 강한 규제 필요. 점심 식사 후 한여름 1, 2시부터 3, 4시 사이 노동 어려움. 여름 노동 어려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 강제 금지
	플랜트	남성	40대	석유화학단지 비계	인식	실외 노동으로 온도 변화에 민감. 특히 여름 노동 어려움. 일정 기간 내에 빨리 끝내야 하는 작업 시 철야, 야간노동 등 산재 위험, 땀을 물처럼 내뿜으며 고통	기후변화 속도가 엄청 빨라짐. 에어컨 없이 될 수 없음. 주로 철을 다루는 현장 안에서는 될 수가 없음. 42도, 44도까지 기본 온도 올라감. 고열 스트레스 등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상태가 안되고 대화 단절, 언쟁 싸움 증가. 플랜트 현장만 가면 늘 한여름과 비슷, 계절 변화를 느끼기 어려움. 온열로 쓰러지는 사람들 증가. 44도 온도에서 일하다 30분 쉬는 시간 18도 에어컨 공간과 온도차로 건강 위험. 스콜성 집중호우로 현장 내 배수, 정전, 감전 사고 증가, 비로 바닥 미끄러움 등 어려운 근무환경과 일하지 못하는 기간 무급 휴가. 결과적으로 임금삭감으로 이어짐, 돌연사도 많이 발생	데이터 구축 필요. 기후변화 환경으로 인한 영향(피해 및 스트레스 요인 등) 전수 조사와 예방 교육, 노동자들 인식과 자각 우선 필요. 기후변화 영향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가족을 살리며 살 수 있는 현장 만드는 것
	플랫폼	남성	40대	배달 대행 2년	인식	코로나 시작되며 배달일. 배달 대행 날씨에 민감. 기온에 보통 사람보다 10배 정도 더 느낌. 여름 헬멧 속 온도는 더 심각. 오토바이 달리면서 비를 맞는 것은 상상 초월. 극한. 겨울 영하 10도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 손가락 발가락이 아픔. 천안 쌍용동 집중호우로 침수, 오토바이 거의 반이 잠겨서 배달. 배달 대행 사고는 주로 눈 비 올 때 많이 넘어짐. 겨울이 최악. 발가락 손가락 동상 등.	코로나 상황 속에 배달 대행은 호황. 그럴수록 산재 사망도 증가. 배달 대행 기사 자존감 높이면서 일할 수 있어야... 위험한 환경일 수록 더 바빠짐.	배달대행 시스템 전환 필요. 배달 노동자가 모든 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과 책임지는 시스템. 높은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처럼 낮추고 노동자 복지 혜택과 지원 필요. 10분 안에 배달 시스템 등 배달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 마련, 하루 중 고위험 시간대 배달 금지 등
	실내	남성	40대	11년 비정규 직, 스카핑	인식	봄 가을이 없어짐. 방진 마스크 작업으로 비오는 날 습할 때 숨쉬기가 어려움. 3~4년 전만 해도 7월부터 9월 말이 작업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6월부터 11월말까지 작업하기 어려움. 여름 평균 작업장 온도가 45도에서 50도. 슬라브 온도는 거의 100도 이상. 원청은 생산량만 고려, 위험한 작업 환경은 신경쓰지 않음. 에어컨 없이 생활하기 어려움. 2020년도 7월 9일 고열 작업장에서 산재 사망 발생. 병원 가기 전 체온이 41.2도. 2~3년 전에는 작업장에서 나오면 바깥 30도 온도가 시원하게 느껴졌으나 지금은 나오면 더 뜨겁고 안에 들어가면 더 더 뜨거움. 여름에는 체중 감소	노동자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침. 탄소중립에 제철소가 많은 영향. 겨울도 그렇게 춥지가 않음. 산재 노동자 사망 증가. 작업 중 심정지 등. 산재 사망 증가할 것임. 작업장 환경 조사를 3일 만에 하고 조사 결과는 밝혀주지 않음.	기후영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업, 제조업에 대해 제대로 된 환경부과금 부과. 통풍,환기가잘되도록공기순환이되는작업장설계와공정 작업조건개선및환경개선필요.온도계가녹는작업환경개선필요

# 기후변화 당사자 인터뷰 사례집 제작 사업 소개

## 사업 취지 및 목적

-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의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위기 당사자들을 고려하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토대
- 충남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평가 기준을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인식과 실천을 반영하여 설정하는데 기여
- 기후변화당사자 각 그룹별 사례집 제작을 통해 이후 부문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논의 및 정책 반영 근거
- 제3차 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충남연구원) 후속 과정

**01 기간** 2022. 1. ~ 2.

**02 주최** 사단법인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전화 070-8823-0422)

**03 참여단체**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아산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위,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충남청소년  
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1. 수도작, 남성, 60대, 30년 거주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심각하다**

녹색평론 창간호부터 인식  
기후위기 대응으로 귀농선택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최근 2~3년 사이 피해 실감, 벼 보험 가입 보상금 받음(친환경 농산물 의무가입), 3~4년 전부터 병충해 극심, 배추 콩 수확안됨, 노지 탄저병으로 하우스 고추 폭염으로 실패, 농작물 피해 외 농민 폭염 노동 사망.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최근 2~3년 사이 피해 실감, 벼 보험 가입 보상금 받음(친환경 농산물 의무가입), 3~4년 전부터 병충해 극심, 배추 콩 수확안됨, 노지 탄저병으로 하우스 고추 폭염으로 실패, 농작물 피해 외 농민 폭염 노동 사망.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단계 이동하도록 선택형 직불제 강화 방법 고민 필요
- 농민들 손해를 감수하는 것에 동력 제공
- 소농 지원 및 육성,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도시민 농촌 이주 지원, 이주노동자 포용 지원 정책



## 2. 과수, 남성, 50대, 17년 거주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10여년 전부터 인식

10여년 전부터 매년 피해가 일상, 4~5년 전부터 기후변화 대비, 자체 미세 살수 시설, 태풍피해 저감시설 설치, 한국 농업 중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곳이 사과농업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동해와 서리, 일소 피해. 꽃샘추위 2월 동해, 3~4월 서리, 여름 30℃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 사과 화상(일소).  
예산은 해발 50미터로 기후변화에 취약. 사과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 정선 경기도 포천, 파주, 연천 등으로 이동.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사과농사는 점점 어려워질 것.  
탄저병과 당도가 떨어짐.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나 대체작물 연구와 보급, 생산 유통 소비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노동집약적이고 고 생산비가 드는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선물용 보기 좋은 색깔과 모양에 집착)



### 3. 축산, 남성, 40대, 40년 거주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지역 농업학교로 인식

기후변화 환경문제는 도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음  
95년 환경문제 대두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음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젖소는 더위에 취약해 일상적인 대비 필요. 폭염일수 증가로 우려. 홀스타인 젖소 품종이 한국 기후에 맞지 않음.  
차광막, 축사 지붕에 물 뿌리고 선풍기 가동. 비 영향으로 지난해 초지농사가 잘 안됨.  
지난해 늦가을 비로 벼짚을 수거하기 어려워 겨울에 수거하며 품질이 떨어짐.  
전국적으로 벼짚 생산량 격감해 한우 농가들 벼짚 수급이 어려웠음.  
생산량 감소가 가장 큰 피해. 원유 생산량도 감소.  
기후변화로 사료 값은 계속 인상되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생산성은 감소함.

#### 02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축산업 자체 근본적인 변화 필요. 전체 가축 수보다 면적대비 두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
- 소규모 농가 지원, 친환경 바이오가스 시설 대폭 증가 필요
- 자급지향적인 시스템 구축



## 4. 축산, 남성, 70대, 25년 거주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인식하고 있음**

축산 분야 탄소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1.3%  
축산업을 탄소배출 주범으로 호도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돼지는 땀구멍이 없어 더위가 직접적 영향.  
돼지 사육 최저 온도는 18~24℃.  
모든이 생존을 위해 유사산을 일으킴.  
폭염은 번식부터 비육돈까지 영향을 미침.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 02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온도를 낮추기 위한 지열 이용 또는 외부 벽체 쿨링패드 설치로 단열 강화
- 시설비 지원, 집단처리시설로 바이오 가스 발전소 설치
- 화학비료 대신 축산 분뇨 퇴비화





## 5. 공동어장, 남성, 60대, 60년 거주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심각하다**

방조제로 민물 유입 차단되어 공동양식 어장에 영향, 주변양식장 소독제, 대산 석유화학단지 굴뚝 연기와 온배수 및 분진 영향으로 서서히 바다가 죽어감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수온으로 김 생산이 안됨.  
바지락 양식장 개체수 감소.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과거 도성리 바다는 얼음이 10cm 정도였으나 점점 겨울이 없어서 바지락, 감태 생산량 감소 우려.  
겨울이 추워야 바다양식 생산량이 증가.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방조제로 인한 피해 해결
- 민물 유입 해수 유통 원활하게 이동하는 기수역 복원, 갯벌 복원



## 6. 선주, 남성, 50대, 16년 거주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아주 심각**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수온 영향에 민감한 어족 자원 감소.  
우럭 광어를 낚기 위해 점점 멀리 나가야 하고 더 많은 기름 소비.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수온 상승에 따라 새로운 어종 유입 우려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변화하는 어종에 대한 이해, 잡는 법, 활용법 준비
- 방파제 등 태풍, 해일 대비 시설, 생분해 어구 등 친환경어업용품 개발 보급 확대
- 갯벌 및 해양보호구역 관련 교육



## 7. 양식장, 남성, 50대, 59년 거주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아주 민감하게 느낌**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수온은 어류 생존에 밀접한 영향이 있고 더 이상 겨울 바다가 얼지 않음. 여름 고수온으로 병이 많이 생김. 겨울이 춥지 않으면 여름에 피해가 있음. 여름 태풍피해 심각. 수온 28℃ 이상 올라가면 죽는 고기 발생. 우럭보다 송어 양식.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30℃ 이상 고수온이 한달 정도 유지될 경우 피해 우려.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석탄 줄이는 것이 필요
- 고수온에 대비한 양식 교육
- 해수유통



## 8. 이주노동자, 남성, 40대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심각**

인터넷으로 필리핀 소식을 접함  
기후변화로 많은 문제가 있음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태풍이 더욱 강해지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땅이 좁아짐.  
개발에 따라 나무가 사라짐. 시골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함. 치료도 어려움.  
잘못된 정보로 백신을 맞지 않음. 필리핀 감염 큰 피해.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태풍이 더욱 강해질 것. 필리핀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1만명, 자연파괴, 해수면 상승.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나무를 심고 오염을 줄이는 노력 필요



## 9. 결혼이주여성, 여성, 30대, 10년

###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언어소통이 어렵지만 네팔과 비슷한 날씨로 한국 태풍 무서움.  
네팔 오토바이 등 배기가스 문제 심각, 네팔에서도 전기자동차 구입 노력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코로나19 네팔 사망률이 한국보다 높음.  
시골은 2차 접종까지 했다고 들음.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여름이 더 더워지는 것 느낌, 겨울에는 더 추워지는 것 느낌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해결 방안과 대책 마련



## 10. 결혼이주여성, 여성, 30대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인식**

뉴스를 통해 기후변화 인식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한국 겨울 추워서 힘들고, 캄보디아보다 더 더운 여름도 힘들.  
습도가 높음.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짐.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건물, 주차장보다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중요
- 숲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



## 11. 이동권장애, 여성, 40대, 20년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인식

여름 에어컨 없이 생활 어려움.  
공기청정기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가전제품 구매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예측되지 않은 날씨 변동에 따른 이동 어려움. 준비되지 않은 우산 사용 등.  
날씨에 따른 진통제 복용 횟수 증가함. 여름 피부 노출에 따른 질병(물사마귀 등) 발생.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봄 가을이 사라지면서 외부 이동 어려움.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재난 대피 상황에서 속수무책이므로 도움이 필요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12. 청각장애, 남성, 30대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인식

생존과 직결, 재난상황에 더욱 소외.  
청각장애인은 소통이 어려움. 재난 상황에 수어통역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2019년 강원도 산불, 2020년 코로나 1차 대유행 위험에서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함.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장애인이 동등한 혜택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장애인인식교육 의무화, 장애인 중심 통합교육
- 정부 정책 수립 시 복지 전문가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직접 참여
- 재난 알리미 수어 도입, 긴급재난 상황에서 수어통역 대책 마련





## 13. 시각장애, 여성, 40대, 20년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인식**

경주에서 바나나 파인애플 재배 뉴스, 수온 상승으로 굴 가격 인상  
마세면지로 마스크 착용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안마 고객 감소, 병천에서 폭우.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바다 자원 고갈, 제철 생산 어획량 감소 등으로 먹을거리 가격 인상.  
전기요금 인상, 기아와 가뭄.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자원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조례 제정, 기후환경관련 조례 제개정 및 모니터링
- 긴급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처 방법 마련
- 재난문자 알리미는 음성 전화기 사용



## 14. 학교밖청소년, 여성, 10대,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활동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심각하다고 들은 정도**

이상 기온 현상, 북극곰 이야기 등 TV를 통해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집중호우로 기숙사에 물이 참, 미세먼지 오염.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바이러스 등 사람에게 위해. 생존 위협, 전기세 가스비용 증가.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유튜브, 인스타그램, 미니 웹툰을 통한 기후변화 영상 교육
- 쓰레기 줄이기



## 15. 학교내청소년, 여성, 10대, 청소년환경동아리 활동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심각하게 인식

등교거부 기후행동 캠페인 유튜브 영상.  
대부분 기후변화 인식하지 않음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여름 무더위,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체육 교실 수업.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어른들이 10년 전(기후변화 전) 누렸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될 것.  
마스크, 방독면 착용, 홀로그램으로 동물들을 볼 수도 있음.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텀블러 쓰고 장바구니 든다고 나아지지 않을 것
-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 16. 주거복지센터, 남성, 60대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알고 있음

TV, 주변사람들과 이야기

올 겨울 눈이 2번밖에 오지 않음. 겨울 눈 보기가 어려움. 여름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더움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가건물 집, 영철 지붕,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움.

에어컨없이 여름 지내기 어려움. 코로나로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지내는 어르신.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주로 야외 노동, 여름 무더위로 인한 건강 우려. 뇌경색과 고혈압 악화 우려.

여름철 전기료 상승 우려. 여름을 보내는 것이 걱정.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냉난방비 더 많은 지원 필요
- 특히 시골지역 냉난방비 지출 부담
- 에어컨 설치 또는 주택 에너지효율화(단열공사, 이중창, 지붕 개량 등) 지원



## 17. 주거복지센터, 여성, 50대

###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인식

TV, 매스컴, 거래처나 가게 오는 사람들 이야기  
겨울이 짧고 봄 같음. 오징어 가격 폭등, 집에서 여름을 지내는 것이 어려움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여름 무더위, 집에 곰팡이와 도배지 벗겨짐. 단열이 안되는 집 냉난방비 전기료 부담이 커짐.  
에어컨 없이 여름 지내기 어려움. 여름을 지내는 것이 고통스러워짐.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힘들. 출퇴근 걷는 것도 힘들. 봄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 겨울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주변이 재개발지역으로 어수선하고 기후변화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음.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아이들이 커면서 정부지원 중단
- 단열이 안되는 전세집 냉난방비 지원 또는 전기료 감면 확대
- 집주인이 안 해 주는 단열, 집수리 지원



## 18.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60대, 27년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인식

봄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 겨울이 길어짐  
산에 서식하는 나뭇버섯·도라지가 없어짐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증가.  
환기를 하기 어려움.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날씨에 따른 스트레스로 요양원 내 돌발행동, 난폭행동, 실수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  
병원 이송 증가에 따른 직원 증가 필요. 한달 전기요금 2천만원 이상.  
현재 에너지 절감으로 6~7백만원. 재정 부담과 어려움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가뭄 물 부족 대비 필요. 물탱크를 키우는 것보다 자체 물 확보 방안 필요
- 야외 분수대나 실내 벽면 수경재배시설 설치 관리
-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 지원



## 19. 사회복지서비스, 여성, 60대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크게 관심 없음**

TV 뉴스에서 들어봄  
내용 잘 모름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여름 더위가 에어컨을 사용해도 기분 나쁘게 느껴짐.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겨울이 춥지 않음. 찬바람이 세게 느껴짐.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냉난방비 전기 소비량 증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어르신 짜증이 늘고 예민해져 일하기 힘들어짐.  
기후변화로 방문이 어려워질 경우 어르신들 생활에 어려움 발생.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냉난방비 전기요금 누진세 감액, 어르신 의료비 지원 확대
- 이동을 위한 택시지원 정책
- 독거노인 등 긴급 상황 상태 확인 연락 등 대책 마련 필요



## 20. 노인, 여성, 70대, 50년

###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인식

이상 고온 현상, 겨울 눈이 안옴  
여름 장마가 길어지면서 농작물 뿌리 썩는 현상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폭염으로 생명 위험. 특히 2018년 폭염은 에어컨 없이 힘들었음.  
자식들 보는 횡수가 줄어들음. 조문을 가지 못함.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사람 간의 만남 횡수가 줄어들면서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들.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농가소득 보전
- 정책을 만들 때 당사자들 의견을 듣는 것
- 노인들의 삶과 농민들의 삶에 걱정이 없도록 좋은 정책 만드는 것





## 21. 노인, 남성, 80대, 84년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인식

뉴스와 농사를 짓으며 인식  
농작물 생육 환경과 날씨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사계절 경계가 무너짐.  
올 가을 이상고온과 계속된 비로 다습해 배추 밑동이 무르면서 썩어 수확하지 못함.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코로나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함.  
가족 친지 자녀들과 왕래를 할 수 없음.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혼자 사는 노인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정책, 의료 복지서비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 22. 공연예술, 남성, 50대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인식**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술 활동 어려움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예술 강사 활동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휴강에 대한 보상 대책 없음. 예술인 종사 실태조사 있었음. 비대면 공연으로 영상 방송 분야가 상대적으로 호황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대책은 모르는 일.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비대면 공연 행사에 영상 방송 송출 비용이 많이 들어간 반면 공연 예술인들의 몫이 상대적으로 줄어듦. 비대면 공연은 대안이 될 수 없음.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기후 재난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보전 필요
- 비대면 공연의 경우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방송 영상 장비와 인력 지원 필요
- 예술인 고용보험이 4대 보험 적용과 함께 확대되는 것이 필요



## 23. 전시(시각디자인), 남성2인, 40대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인식

야외 공간이 날씨와 연관성이 많아 폭염으로 전시가 어렵거나  
창작공간이 더워도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없음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지원금이 아니면 전시 기회조차 없음. 어려운 예술 활동에 전시활동이 더 어려워짐.  
사진 영상 작업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수월함.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인터넷상 가상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거래 등 위험 우려.  
자유로운 소통 통제 제한.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공연예술 지원금이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로 지원, 공연예술 피해 보상 및 매뉴얼 마련
- 최저생계비 기준 기본소득,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 창작 여건 마련
- 기본적인 생활(에너지포함) 해결



## 24. 전시(회화), 여성

###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코로나로 전시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것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작업공간이 없어 예술 강사로 수입이 없음. 작품 활동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예술 활동의 지속성 담보가 안됨.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전시할 경우 폭염, 폭우에 민감.  
대관료와도 관련. 코로나 상황의 영상 또는 비대면 전시 한계.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지속적 예술 활동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



## 25. 건설, 남성, 30대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인식

건설현장은 날씨 영향이 큼  
집중호우, 폭우, 폭염, 폭설, 한파 등 일하기 어려움. 철근 화상 위험 등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온열질환, 땀띠, 열화상, 산재 위험 증가, 생명 위협, 폭염에 장비입고 마스크하고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숨이 쉬어지지 않고 정신을 잃기도 함.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더 덥고 습한 환경 속에 노동 우려와 불안.  
산재로 인한 사망보다 장애 또는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끔찍.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국가 산재예방 강한 규제 필요
- 점심식사 후 한여름 1~2시부터 3~4시 사이 노동 어려움
-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 강제 금지



## 26. 플랜트, 남성, 40대, 석유화학단지 비계팀

###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인식

실외 노동으로 온도변화에 민감. 특히 여름 노동 어려움. 땀을 물처럼 내뿜으며 고통  
일정 기간 내에 빨리 끝내야 하는 작업 시 철야, 야간노동 등 산재 위험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기후변화 속도가 엄청 빨라짐. 에어컨 없이 실 수 없고 주로 철을 다루는 현장 안에서는 실 수가 없음.  
42~44℃까지 기본 온도가 올라 고열 스트레스 등으로 대화단절, 언쟁 싸움 증가.  
플랜트 현장만 가면 늘 한여름과 비슷하고 계절 변화를 느끼기 어려움. 온열로 쓰러지는 사람들  
증가. 44℃ 온도에서 일하다 30분 쉬는 시간 18℃ 에어컨 공간과 온도차로 건강 위험.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스콜성 집중호우로 현장 내 배수, 정전, 감전 사고 증가. 비로 바닥 미끄러움 등 어려운 근무환경과 일하지 못하는  
기간 무급 휴가. 결과적으로 임금삭감으로 이어짐, 돌연사도 많이 발생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기후변화 환경으로 인한 영향(피해 및 스트레스 요인 등) 전수 조사와 예방 교육, 노동자들 인식과 자각 우선  
필요 (데이터 구축 필요)
- 기후변화 영향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가족을 살리며 살 수 있는 현장 만드는 것



## 27. 플랫폼, 남성, 40대, 배달대행 2년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 인식

코로나 시작되며 배달일 시작  
배달 대행은 날씨에 민감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기온을 보통 사람보다 10배 정도 더 느낌. 여름 헬멧 속 온도는 더 심각. 오토바이 달리면서 비를 맞는 것은 상상 초월. 극한직업. 겨울 -10℃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체감온도는 -3℃. 손가락 발가락이 아픔.  
천안 쌍용동 집중호우로 침수, 오토바이 거의 반이 잠겨서 배달. 배달 대행 사고는 주로 눈 비 올 때 많이 넘어짐.  
겨울이 최악. 발가락 손가락 동상 등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코로나 상황 속에 배달 대행은 호황. 그럴수록 산재 사망도 증가.  
배달 대행 기사 자존감 높이면서 일할 수 있어야 함. 위험한 환경일수록 더 바빠짐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배달 노동자가 모든 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을 책임지는 시스템 전환 필요
- 높은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처럼 낮추고 노동자 복지 혜택과 지원 필요
- 10분 안에 배달 시스템 등 배달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 마련(하루 중 고위험 시간대 배달 금지 등)



## 28. 실내, 남성, 40대, 11년 비정규직, 스카핑

Q. 기후변화를 언제부터 인식했고 어떻게 인식하게 되셨나요?

**인식**

봄 가을이 없어짐

### 0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경험?

3~4년 전만 해도 7~9월이 작업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6~11월까지 작업하기 어려움. 여름 평균 작업장 온도가 45~50°C. 슬라브 온도는 거의 100°C 이상. 원청은 생산량만 고려, 위험한 작업 환경은 신경 쓰지 않음. 에어컨 없이 생활하기 어려움. 2020년 7월 9일 고열 작업장에서 산재 사망 발생. 2~3년 전에는 작업에서 나오면 바깥온도가 시원했으나 지금은 나오면 더 뜨겁고 실내는 더 뜨거움.

### 0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노동자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침. 탄소중립에 제철소가 많은 영향. 겨울도 그렇게 춥지가 않음. 산재 노동자 사망 증가. 작업 중 심정지 등 산재 사망 증가할 것. 작업장 환경 조사를 3일만에 하고 조사 결과는 밝혀주지 않음.

### 0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기후영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업, 제조업에 대해 제대로 된 환경부과금 부과
- 통풍, 환기가 잘 되도록 공기순환이 되는 작업장 설계와 공정
- 작업 조건 개선 및 환경 개선 필요. 온도계가 녹는 작업 환경 개선 필요



# 토론문

## ■ 토론자 : 배형택(전농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 1. 지구온난화가 불러오는 이상 기후의 제일 큰 피해자는 농민들

- ◎ 극심한 가뭄, 끝을 모르는 장마, 이상 저온, 폭염 등
  -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도래. 과수농가의 경우 꽃눈이 나왔으나 이상 저온으로 다 죽어버리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 이전에 없었던 병해충까지 폭증시키는 기후위기
  - 감자의 경우 잎과 줄기가 시드는 풋마름병과 더듬이병으로 심대한 타격 발생
- ◎ 극심한 가뭄, 끝을 모르는 장마, 이상 저온, 폭염 등
  - 기후변화 위기속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아닌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 형식적인 수준의 재해피해조사와 지원수준이 아니라 예방, 복구, 보상을 다 포괄하는 수준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 필요

### 2.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

- ◎ 최근 인도의 밀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확량 감소, 미국·프랑스·아프리카 북동부 가뭄, 대홍수로 인한 중국 양쯔강 유역의 쌀농사 초토화 등으로 세계 식량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음
- ◎ 식량자급률 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기후위기가 불러올 식량위기 사태를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함
  - 기후위기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식량위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여내는 것이 기본임
  - 더불어 국가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비축미를 충분히 준비해야 함
  - 비상사태에 대비한 에너지 비축량은 6개월치 소요량으로 설정
  -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180만톤) 쌀도 비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쌀값폭락사태를 방지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 3. 관행농업과 기후위기

- ◎ 자본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각국 정부는 자본의 입맛대로 화학비료와 농약 중심으로 농업체계를 설계. 그 결과 관행농업은 농민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하나의 기후위기 주범이 됨

- 탄소배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대규모 단작 재배, 산업형농업
- ◎ 2014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는 지구 상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과 기타 토양사용에서 오는 온실가스 발생량이 약 24% 수준이라고 밝힘
- 이는 일반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 비중 21%보다 많은 수치임
- ◎ 합성비료(화학비료)의 생산과 사용만으로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
- ◎ 땅이 척박하면 급격히 변하는 기후 조건에서 농작물 재배를 지속하기 어려움
- 화학비료나 농약의 힘은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함
- ◎ 지방의 농산물이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시 전국으로 팔려나가는 비효율적 농산물 유통구조는 농산물 수확 이후에도 거대한 양의 탄소를 도로에 쏟아 붓고 다니는 구조임

#### 4. 탄소배출농업이 아니라 탄소저장농업으로

- ◎ 소농이 지구를 식힌다
- ◎ 해결책은 우리 발아래 있다
- 흙은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저장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은 780기가t 정도인데 토양에 그보다 2~3배 정도 많은 이산화탄소가 묻혀 있음
- 김용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온실가스의 적극적인 격리를 통한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이 농업 분야에서도 강구돼야 한다”며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격리해 온실가스 발생보다 흡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 등을 공익형 직불제에 포함시키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농가의 인식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함
- 탄소배출이 아니라 탄소보존형 농업을 위해서는 땅을 뒤집어엎는 경운농법을 기본으로 하는 대규모 단작농업(산업형농업)으로는 불가능
- 대안은 무경운 또는 경운을 최소화하는 농법을 실현할 수 있는 소농, 가족농형태의 농업
- ◎ 친환경 소농, 가족농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
- ◎ 친환경 유기농이 확산되지 않은 이유
- 도시의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처럼 농촌 내부에서도 대농과 소농의 격차는 커지고 있는데, 정부지원은 대농 중심. 도시와 농촌의 격차만이 아니라 농촌 내부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음
- 농경연의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저탄소농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의 저탄소농업기술은 재배과정에서 노동력 투입이 증가하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비해 시장에 판매했을 때 가격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 생산량 감소, 노동량 증가등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선택형 직불금’등의 제도적 장치 필요
  - ‘친환경 유기농을 하면 고생길이다’는 분위기를 타파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적이고 적극적인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무경운이나 녹비작물 재배 등 보전 농법으로 유기물을 축적한 양을 계량해 인센티브 주는 방식(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아 시장에 팔 수도 있게)도 유효
- ◎ 거대한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현재의 농산물유통구조를 전면적으로 지역먹거리체계(로컬푸드)로 전환해야 함
  - 소농, 가족농이 생산한 농산물은 거대한 양이 아니라 생물다양성이 바탕이 되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기본임
  - 이러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유통구조 건설을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중점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토론자 : 김춘옥(충남이주여성상담소 상담원)\_기후와 이주민

### 1.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 ◎ 코로나19

- 이주민 마스크 구하기 어려웠음(코로나19시작점에 등록증 뒷자리순으로 마스크 배분할 때 미등록 이주민들은 마스크 한 장도 구하지 못하고 생리대 잘라서 마스크로 쓰기도 하였음)
- 이주노동자 코로나 검사 강요(코로나가 집단으로 발생할 때 이주민밀집지역에서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생한다고 뉴스에 나오면서 무조건 코로나검사 해라는 논란도 있었음)

#### ◎ 기숙사

-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S씨사망(비밀하숙소) : 한겨울 비밀하숙소 기숙사에서 기숙사비 3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곳에서 생활하다 사망에까지 이룸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A씨 사망 (컨테이너 숙소) :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문이 잠겨 화재로 사망

#### ◎ 일자리

- 경제 어려움으로 일자리 줄어들어 생활도 어려움
-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비스업이 어려워지자 해고로 일할 때 없어 생활하기조차 어려움에 있음
-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이주민들은 해당 안 됨

### 2. 기후변화의 예상되는 향후 영향?

- ◎ 코로나로 나라 유입 어려움으로 농촌 계절 농사 일손 부족
- ◎ 전국이주관련단체가 협업하여 이주민향후에 대해 논의 필요

### 3. 기후변화에 따른 요구 정책?

- ◎ 이주노동자 사업자 변경 자유와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정책 마련

## ■ 토론자 : 최재석(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_장애당사자와 기후위기

### 1. 비 범주화

- ◎ “기후위기로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47.5%가 농어민이라고 답했고, 경제적 취약계층(21.5%), 야외노동자(14.0%)가 뒤를 이었습니다.<sup>1)</sup>” 라는 발표가 작년 인권위원회 실태조사로 확인된 바 있음
-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의 위기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가지는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기후약자를 확인하고 이에 대비를 서둘러야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직접적 경제적 피해계층을 떠올리는데 그쳐 있다는 부분은 기후위기를 대비함에서조차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2. 정보의 제한

-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재난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정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심각함
- ◎ 실제로 2018년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 사고 발생 시 장애인 사망자의 비율은 57.4%로 전체 비장애인 사망자의 비율인 12.1%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상황에 대한 장애인의 인지, 판단, 대처가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함에도,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대부분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지상파 방송 3사의 재난 뉴스 속보 어디에도 수어통역, 화면 해설을 제공하는 곳이 없었음
- ◎ 재난이 발생한 그 사실조차도 장애인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sup>2)</sup>
- ◎ 위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비단 정보의 제한만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확인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음을 먼저 확인할 수 있음
- ◎ 사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임. 무조건 막아야 함

### 3. 위기 대응 지침 부재<sup>3)</sup>

- ◎ ㄱ씨(50대 남성)가 확진된 것도 그즈음이다. ㄱ씨 활동지원사가 확진됐다는 통보가

1) 기후위기와 인권 관련 실태조사 / 2021.11.29. / 국가인권위원회

2) 함께걸음 / 2022년 2월 18일 인터넷기사

3)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2020.06.24.

센터에 전해진 지 하루 만에 ㄱ씨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 ◎ 하지만 ㄱ씨는 중증 장애인으로 홀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기 어려웠고, 보건소 쪽에 방문검사를 요구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했음
- ◎ 가까스로 연결된 관할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 양성이 나와야 (방문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음
- ◎ 담당 공무원은 원칙을 앞세우며 물려서지 않았다. 실랑이를 할 여유가 없었다. 전 팀장은 센터 밖으로 달렸다.
- ◎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가키트를 어떻게 구입하며, 손이 경직돼 식사도 못 하는 분이 어떻게 코에 검사키트를 집어넣느냐(고 따졌어요). 그래도 원칙, 저래도 원칙, 원칙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키트 양성반응만 있으면 와주겠느냐고 몇 차례 다짐을 받고 나섰죠.”
- ◎ 접근성 부족으로 코로나 검사를 한번도 받지 못하고, 백신 접종도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다”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의원 중 9할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편의시설 정보조차 없다”고 했다. 자립센터에는 벌써 3명의 확진자(지난 19일 기준)가 나왔고, 이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대구/하어영 기자
- ◎ 어쩌면 부재는 아니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로나 19 발발 초기인 2020년에 매뉴얼이 발표되었음
- ◎ 그런데 이어지는 기사 발췌문에서 보면 매뉴얼에 붙잡혀 실질적인 지원은 요원한 상황인 것을 또한 알 수 있음
- ◎ 재난 약자인 장애당사자들이 말하는 의미는 사전 대응과 그에 따른 철저한 개별화를 요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부처는 사후대응만도 최선이니 그 이상은 또 한번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여전한 현실임
- ◎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시중에 판매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해 주고 스스로 확인하라고 한다면 이는 매뉴얼의 이행인가? 아니 또 한 번의 절망일 수 밖에 없음

#### 감염병(코로나19) 장애인 취약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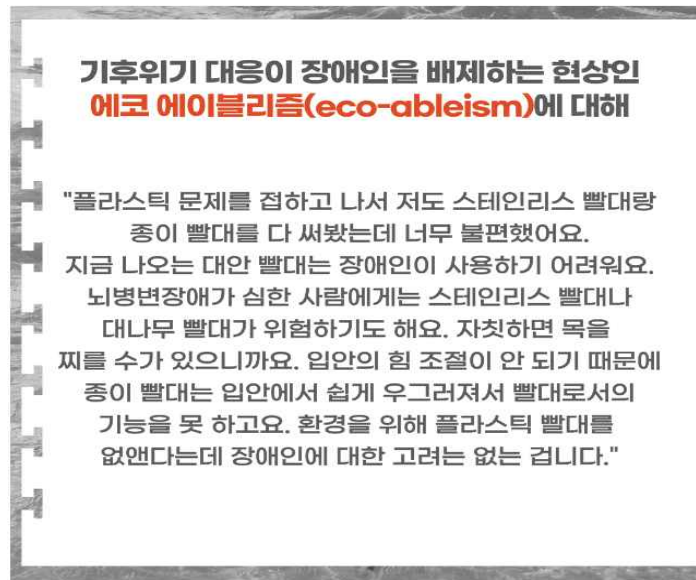
① 의사소통장애, ② 이동장애, ③ 감염취약, ④ 밀접돌봄, ⑤ 집단활동

〈장애유형별 재난(감염병)에 대한 주요 취약성 요약〉

장애유형	의사소통장애	이동장애	감염취약	밀접돌봄	집단활동
지체					
시각	시각정보				
뇌병변					
청각	음성·의사소통				
발달(지적, 자폐성)	의미·의사소통				
내부기관의 장애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 4. 에코 에이블리즘에 대하여<sup>4)</sup>



- ◎ 위 내용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연속인터뷰의 내용 중 일부 발췌 내용임
- ◎ 한편에서는 기후 재난 위기에서 기본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자명해서 안타까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에코-에이블리즘(Eco-ableism, 친환경-장애차별주의)’<sup>5)</sup> 도 이슈임
- ◎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위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의 예 임
- ◎ 중증의 장애당사자는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사용의 ‘절대적 필요성’이 앞서는 문제이기 때문임
- ◎ 물론 장애인이 기후위기와 무관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음
- ◎ 기사 마무리에서도 말하듯이,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적인 요소를 걷어낸 방법으로 다양하게 환경 살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더불어 고민하기도 시작해야 할 시기도 바로 지금인 것은 분명한 듯 함

4)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2020.06.24.

5)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63>



## ■ 토론자 : 여형범(충남연구원)\_장애당사자와 기후위기

- ◎ 국가와 지자체는 5년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2022년 2월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음(2022년 5월 환경부 승인)
- ◎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대체로 주요 대규모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옴
  -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시설을 확충하고, 극심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치수 시설을 보강하는 방식임
  -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는 에너지와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도 새롭게 포함되었음
  - 앞으로도 교통, 에너지, 물, 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기후변화에 맞게 확충하고 관리하는 활동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임
- ◎ 반면, 그동안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대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에 비해 사람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음
  - 최근에는 폭염, 가뭄, 홍수 등의 영향이 사회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는 점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 하지만, 눈에 잘 띄고 지자체장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취약지역의)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에 비해, 취약계층을 돌보고 지원하는 사회적 대책은 눈에 잘 띄는 영역이 아님
  - 사회적 대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책의 확장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 이와 관련하여 기후위기 취약지역의 공동체와 취약계층이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구상하고 실험하면서 적응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기후정의기금 또는 환경정의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미국의 환경정의/기후정의 프로그램 참고)
  -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정의40 사업(Justice40 Initiative)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의 40 사업은 미국 연방정부가 투자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발생한 편익의 최소 40%를 취약지역 공동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사업임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CalEnviroScreen이라는 환경불평등 측정 모델을 통해 선정된 취약지역(전체 지역의 25%)에 캘리포니아 기후투자기금의 25%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취약지역 공동체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Transformative Climate Communities program)도 운영하고 있음

- 시애틀시도 환경정의기금(Environmental Justice Fund)을 설립하여 매해 75만 달러의 기금을 공모를 통해 기후변화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공동체에 지원하고 있음
- ◎ 기후변화 영향 및 대책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시행 과정 및 결과가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함
- 제3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는 2019년 개정된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지침”에 따라 추진함
- 현재 이행평가는 예산 및 사업량에 대한 정량·정성지표 평가로만 진행되고 있어, 개별 사업들이 기후위기 적응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개선될 점은 무엇인지, 장애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
- 충남도 및 시·군의 적응사업을 대상으로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응사업의 효과, 문제, 개선점 등을 도출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음
- ◎ 더불어 이행평가 결과를 도민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 이행평가 검토보고서의 작성 방식, 형식,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많은 지자체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나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자발적 검토 보고서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자발적 지역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 브리스톨시는 행정의 SDGs 사업뿐만 아니라 브리스톨시 내 다양한 단체/조직들이 SDGs 달성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여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기관/단체/조직들이 SDGs를 인식하고 기존 활동에 녹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충남 기후위기적응위원회와 도민평가단이 구성·운영된다면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충남 기후변화 적응의 주요 이슈, 성과, 과제를 정리하는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정부의 ‘기후변화적응 국민평가단’ 구성·운영을 참고하여 ‘충남 기후변화적응 도민평가단’ 구성·운영
- 환경부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던 방식을 넘어서, 국민평가단(약 50명)을 모집하여 설명회, 현장방문, 적응대책 제안회의, 성과평가회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 국민평가단은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8대 국민체감형 과제(41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함

- 충남에서도 도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면 시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기후위기 당사자 인터뷰, 충남기후변화적응 검토보고서 작성 또는 충청남도 적응대책 이행평가 보고서 검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기후위기는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과 역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기후위기 당사자가 직접 책임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제3차 충남 기후변화적응대책 中 적응주류화 실현 부문 세부이행과제 참고)

- 제3차 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이행계획 (적응주류화 실현 부문) -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유형	주관부서	추진기간
VIII-1-1	기후위기 영향 지도 개발	신규	기후환경정책과	'25~'26
VIII-1-2	기후위기 적응 사업 맵핑	신규	기후환경정책과	'22~'26
VIII-2-1	기후위기 당사자 인터뷰	신규	기후환경정책과	'22~'26
VIII-2-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민과학 지원 사업	신규	기후환경정책과	'24~'26
VIII-2-3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민생활실험실(리빙랩) 운영	신규	기후환경정책과	'24~'26
VIII-3-1	기후적응카페 지정·운영	신규	기후환경정책과	'24~'26
VIII-3-2	기후위기 적응 교육 활성화	기존보완	기후환경정책과	'22~'26
VIII-3-3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작은연구 지원	신규	기후환경정책과	'2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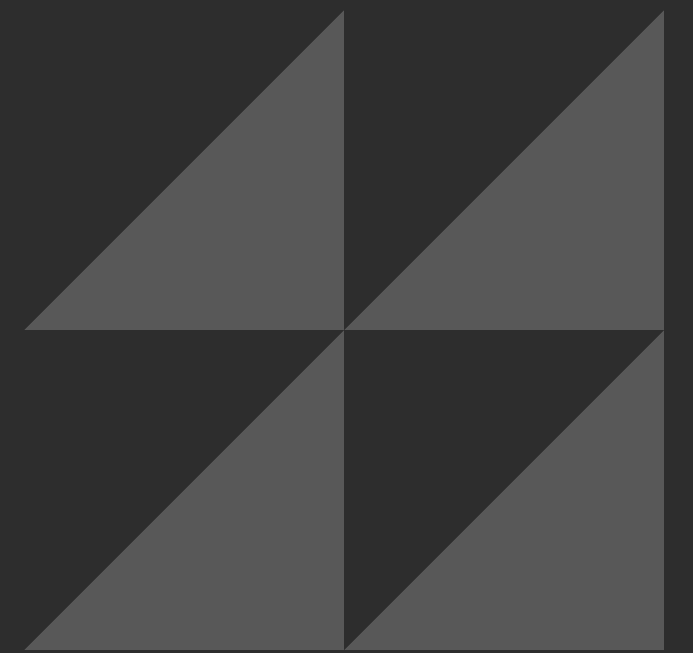
# 기후정의를 향하는 지역 노동(운동)의 고민들

탈석탄 국제컨퍼런스

세션 04 |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 : 기후변화 적응

2022년 9월 6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류민 정책기획팀장



# 일상이 된 재난, 기후위기

## 기후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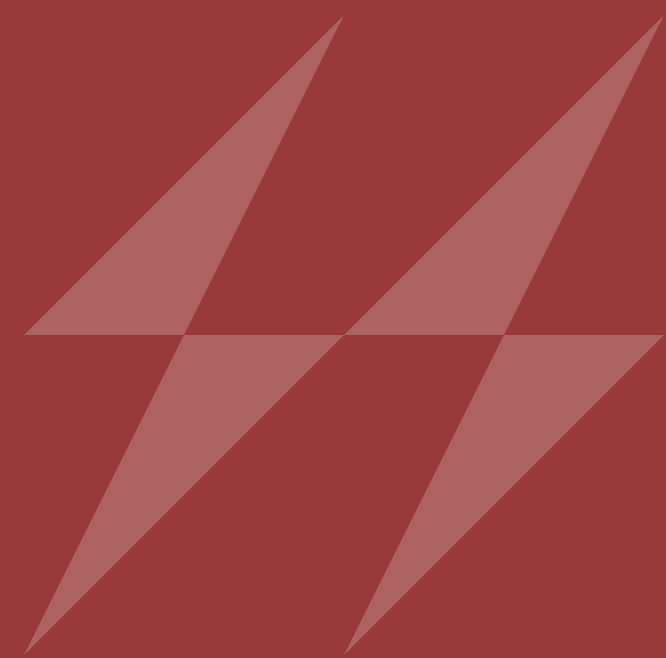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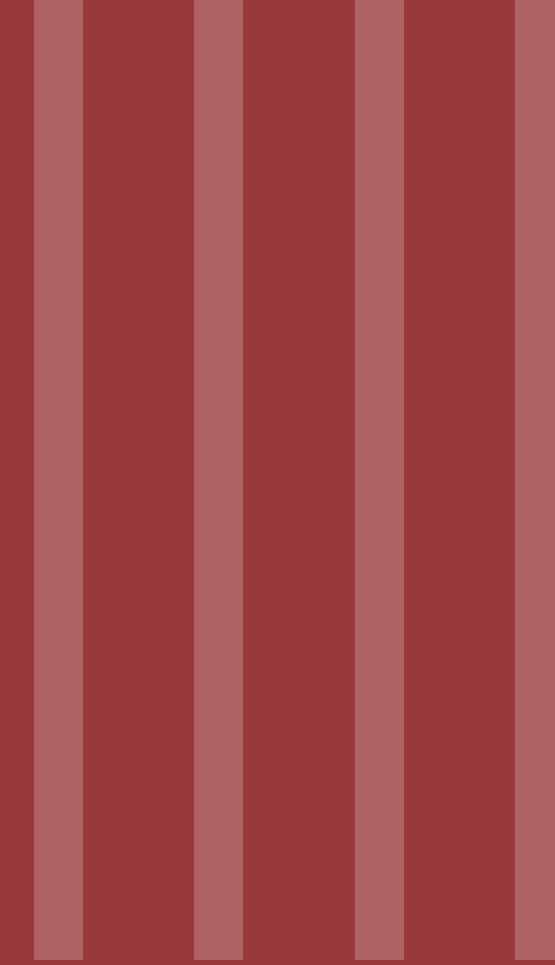
- 전 세계를 뒤 덮은 폭염과 폭한, 홍수와 산불, 미세먼지, 감염병
-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 2.4도나 높은 지구의 온도
- ‘타오르는 지구’에서 ‘일상’이 된 재난
- 기후 변화는 전 지구적 생태와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보편적’ 위기
- 재난의 칼날은 더 불안하고 가난한 이들을 먼저
- 계급과 인종, 젠더, 연령 등의 분별이 교차
-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



“홍수는 사회의 표면을,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쓸어 가 버린다.

하여 근원적 권력 구조를 불의를, 부패의 패턴을  
그리고 의식하지 못한 불평등을 폭로한다”  
(데이비드 브룩스, 2005)

지독한 가뭄으로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근을  
겪은 마다가스카르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01%  
‘가장 책임 없는’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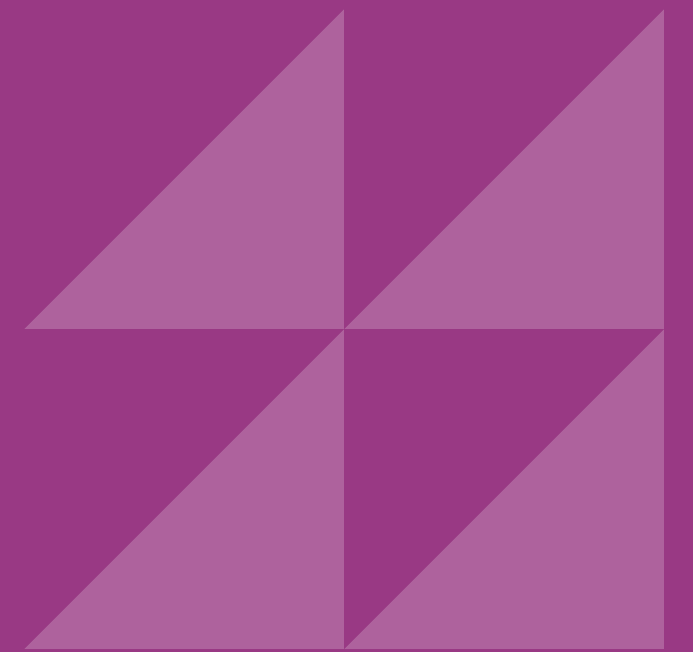


- 115년만의 폭우는 땅 아래 낮은 곳부터 쓸어 삼켜
- 신림동과 상도동 서로 다른, 그러나 같은 반지하
- 기초생활수급자,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죽음들
- 기록적인 폭우, 이웃의 참사
- 재난한의 한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못하는 우리
- 주거의 권리, 돌봄의 권리, 이동의 권리, 일을 멈출 권리, 안전할 권리
- 보편적 인권이 박탈된 세계
- 노동자와 시민들의 선의와 희생으로 유지되는 고장난 세계
- 촘촘하고 단단한 사회적 안전망을
- 모두의 안전과 존엄
- 고장난 세계를 멈추고 다른 세계를



# 기후의 위기, 노동의, 노동자의 위기

- 기후위기와 기술의 혁신, 세계 경제의 위기가 맞물린 전환의 물결
- 일과 삶의 관계에서 이미 뿌리 깊은 구조적 불평등과 소외를 강화
- 일할 권리, 일을 멈출 권리, 안전할 권리, 이주와 정주의 권리 등
- 인간과 노동의 존엄을 훼손
- 비민주적 '기후 적응', '산업 전환' 과 재편의 물결
- 재난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또 다른 연쇄적 재난의 방아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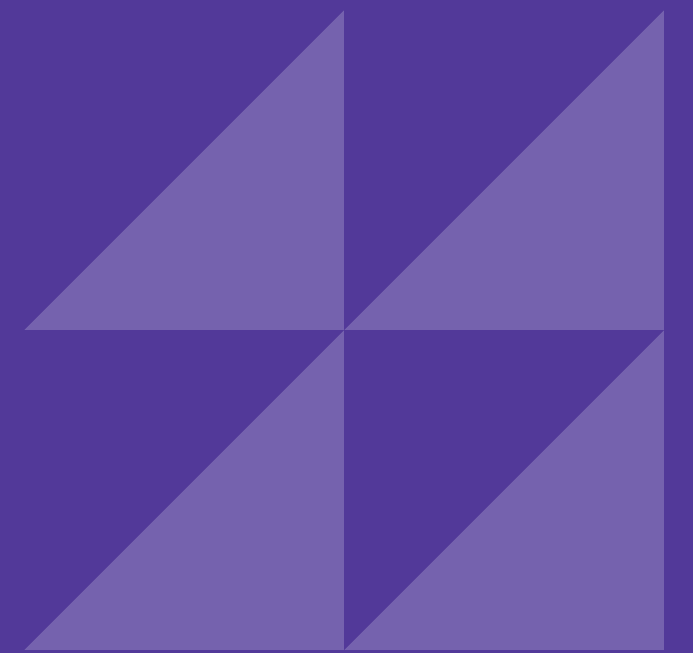




# 기후변화, 기후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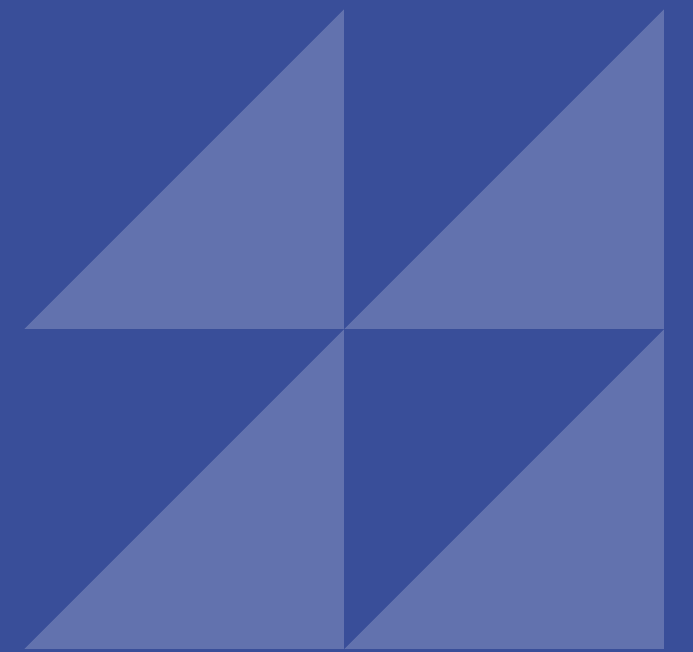
## 탄소중립(?)...

- 국제기구, 교토 메커니즘, COP의 실패들
-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담론, 북반구 국가들과 기업들의 이해들
- ‘서로 싸우는 형제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다툼과 화해들
-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BDR)’의 원칙을 무시
- 남반구 가난한 국가의 시민들, 전 세계 불안정 노동자들, 이주민들, 여성들, 소수자들에게 전가된 ‘책임’
- 탄소거래시장 등 자본을 위한 새로운 놀이터, 자본주의의 장기적 침체 국면, 새로운 활력을 탐색하는 자본의 이해에 통제



#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의 변화를 : 기후 정의

- 대안세계화, 반전운동 이후 가장 활력적인 국제적 연대
- 기후 정의 운동
- 코차밤바 민중협정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 기후의 위기, 노동의 위기, 삶의 위기는 모두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뿌리를 내린 열매들, 서로 양분을 더하고 나누면서 자라나
- ‘구조적’이고 ‘변혁적’인 전환



# 기후정의 운동과 노동, 그리고 시민, 생태

- 기후가 아닌 체제의 변화를 향하는 촘촘한 연대
- 기후 정의와 노동, 여성, 이주, 환경이 교차하는 연대
- 전환 시기, 일할 권리의 획득을 넘어서
- 일을 멈출 권리, 멈추고도 생존할 권리를
- 사회적 분별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간과 동물이, 다양한 생태가 공존할 권리
- 인간과 노동, 생태의 존엄, 지속가능한 존엄을 향하는 연대



# 기후정의 운동과 노동, 그리고 시민, 생태

- 노동자와 시민, 생태의 존엄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체제
- 폭 넓고 촘촘한 사회운동의 조직
- 노동자와 시민 개인의 현실, 지역사회의 현실, 국가의 현실에 대응하는 구체성과 고유성을 담보하는 한편, 세계적 차원으로 조직된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노동의 위기에 저항하는 국제적 실천들과 연결되어야



# 기후정의 운동과 노동, 그리고 시민, 생태

- 탄소중립 담론의 수 많은 사회적 투자와 결정들
- 전환의 '주체'가 아닌, 조정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노동자
- 새로운 사회적 책임들, 사회적 관계들을 다시 묻고 설계하는 주체로서 노동자와 시민, 일 하는 모두, 일을 멈춘 모두
- 조직된 사회적 투자들이 인간의 '존엄'을 향해 쓰여지도록 정책 결정에 개입하고 균열을 내기 위한 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유의미



# 기후정의 운동과 노동, 그리고 시민, 생태

- 다만 그 협의의 공간은 어떤 사회적 실천으로 획득하고, 그 공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이 먼저 민주적으로 설계될 필요
- 기후위기와 전환 담론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접근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론장을 다채롭게 구현해야
- 이를 위한 지역사회 여러 운동 영역들의 협력이 중요

